

# 코로나發 고용쇼크... 월간 실업급여 사상 첫 1조

## 고용노동부, 5월 노동시장 동향

지급액 1조162억, 전년비 34% ↑  
신청자 11.1만명 달해... 32% 급증  
한달간 고용보험 가입자 1382만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었다.

8일 고용노동부의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작년 동월(7587억원) 대비 33.9%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단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 1000명으로, 작년 동월(8만4000명)보다 32.1%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34.8% 늘어난 67만8000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외에도 지급 기간 연장 조치와 1인당 지급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2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5만5000명(1.1%)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지난 2월 37만6000명에서 3월 25만3000명, 4월 16만3000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5월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달 943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4000명(2.1%) 증가했다. 증가 폭이 4월(19만2000명)보다 커졌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두드러진 것은 공공행정(4만3000명)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던 정부 일자리 사업이 비대면·야외의 작업을 중심으로 속속 재개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업의 가입자도 10만명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 이후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서비스업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도·소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8000명에 그쳐 4월(1만4000명)보다 축소됐고 숙박·음식업 분야 가입자는 3000명 줄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도 2만6000명 감소하는 등 대면 접촉 기피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내 산업의 허리를 잡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는 352만 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만4000명

(1.5%) 줄어 감소 폭이 4월(4만명)보다 커졌다. 또 전자통신과 자동차업의 가입자도 각각 1만2000명, 9000명 줄면서 감소 폭이 확대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각각 3만2000명, 10만6000명 증가하고 60대 이상은 14만1000명 늘었으나 기업 신규 채용 축소나 연기로 29세 이하와 30대는 각각 6만3000명, 6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48만 6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만명(15.7%) 감소했고 상실자는 43만4000명으로, 7만9000명(15.5%) 줄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감소 폭이 4월(2만5000명)보다 커진 이유는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 고용 유지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돼 전체 취업 동향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더위 식히는 의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무더운 날씨를 보인 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근무교대를 한 의료진이 얼굴에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 “공매도 재개땐 국내증시 조정 가능성”

### 》1면 'V자 증시 만든 머니...'서 계속

케이프투자증권은 하반기 지수 상단을 현재 EPS를 15%가량 상향해 2460으로 재조정했다.

### ◆ 리스크는 'FOMC·공매도'

다만 투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벤트도 남아 있다. 먼저 이번주에 열리는 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다.

고용지표가 기대보다 높았던 만큼 긴축을 시사하는 멘트가 나올 수도 있어서다. 현재 주식시장은 유동성에 기댄 것이어서 연준 언급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재정정책 강도 또는 효력이 멈출 가능성에 있는 여음이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이라며 “글로벌 증시 회복 속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에 공매도 제한이 풀리게 되면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은 공매도 효과로 9% 가량 상승한 상태라는 것이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가 허용됐다면 코스피지수는 2000포인트 수준으로 추정한다”면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높아진 주가수익비율(PER)이 보정될 여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공매도로 인한 조정 국면은 펀더멘털 회복이 수반된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반기 증시도 외국인이나 개인투자자가 수급 주체가 될 전망이다. 시장의 유동자금이 풍부해서다.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은 올해 3월 처음으로 45조원을 돌파한 후 현재까지 44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는 20개월만에 11조원을 돌파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현대차그룹, 557억 상생펀드로 대리점 지원

작년 지원금 327억 보다 70% 증액  
1860개 대리점에 판매지원금 700억

현대자동차그룹이 고객 접점의 핵심 파트너인 판매 대리점 운영자금 지원에 나선다. 일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매장 수를 줄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

다. 현대차그룹은 8일 현대·기아차의 판매 대리점 및 현대모비스의 완성차 부품 판매 대리점에 상생 펀드 조성, 임차료 지원 등 올해 총 557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했던 327억원보다 70% 증가한 액수다.

현대차그룹은 이외는 별도로 700억원 상당의 판매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번 557억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판매 최일선 대리점들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에 위치한 총 1860여 개 판매 대리점으로, 현

대차 및 기아차 판매 대리점 760여 곳과 현대모비스의 부품 판매 대리점 1100여 곳이다.

구체적 지원 내역은 ▲대리점 운영자금 상생펀드 400억원 ▲대리점 임차료 지원 121억원 ▲노후 시설개선 지원 등 36억원이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400억원 상생펀드를 조성해, 판매 대리점이 대리점 운영이나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경우 이자를 지원한다.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대리점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모비스가 2016년부터 운용 중인 상생기금 200억원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00억원씩 신규로 기금을 출연한다. 현대차그룹은 대리점의 상생펀드 이용 추이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 펀드 조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대·기아차는 대리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임차료 부담도 경감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1

억원의 임차 지원금을 완성차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기로 했다. 임차 지원금은 대리점별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되며, 현대·기아차 전 대리점에 제공된다. 대리점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대리점 노후 시설 개선 등에도 36억원을 투입한다. 대리점의 노후 시설 교체와 방문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내외부 시설 개선 등에 소요된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함께 대리점 차원에서 비즈니스·인문학·자동차 신기술 등 폭넓은 주제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각사 대리점 협의회(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대리점과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자동차판매 및 자동차부품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도입도 대리점 협의회(협회)와 논의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중기부, 기업 70곳에 2000억 금융 지원

‘스케일업 금융지원 사업’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들이 회사채 기반의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추가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스케일업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70개사 안팎에 2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 참여기업은 9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모집한다.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뒤 이를 기초로 선·중·후순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 가운데 선·중순위는 민간에 매각하고 후순위 증권은 중진공이 매입,

시장엔 투자안정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지난해에도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총 114개 중소기업이 1곳당 평균 31억원의 회사채를 발행, 총 3536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받은 바 있다.

특히 스케일업 금융지원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년간 최대 150억원의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성장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